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 국내 유통업체 최초 글로벌 해커톤 대회 '핵서울(hackseoul) 2024' 공동 주관

2024. 8. 26.

- **국내외 200여 명 개발자 참가 고객 중심 혁신 솔루션 경연**

2024. 08. 26. 서울 - 쿠팡은 공동 주관사로 참여한 글로벌 해커톤 대회 '핵서울(hackseoul) 2024'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에서 글로벌 규모의 해커톤을 유통업체가 주관한 것은 처음이다.

'해커(Hacker)'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인 해커톤은 24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코딩 대회다.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진행됐다. 미국,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 10개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개발자들이 24시간 동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주니어부터 시니어 개발자, 대학생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였다. 오브스(Orbs), 현대오토에버, 리디(RIDI) 등 국내외 테크 기업 리더들은 멘토로 참여했다.

핵서울 참가자들의 모습

이번 행사는 2011년부터 해커톤을 조직해 온 글로벌 기업 엔젤핵(AngelHack)이 주최하고, 쿠팡과 개인 정보 보호 프로토콜 업체인 제이케이 패스(zkPass)가 공동 주관했다. 쿠팡은 공동 주관사로서 행사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요 엔지니어링 담당 전문가들이 심사위원과 멘토로 나섰다.

해커톤 대회는 '포용적 금융', '사회적 책임', '디지털 역량 강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쿠팡은 '디지털 역량 강화' 부문에서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사용자 참여를 늘리며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쿠팡 이커머스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 지에 저우(Jie Zhou)와 백엔드 엔지니어링 팀 디렉터 민경훈이 경연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격려사를 전했다. 저우 부사장은 "쿠팡은 고객 중심의 혁신,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인재 육성에 대한 헌신으로 이번 글로벌 해커톤 시리즈에 참여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고객의 요구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2170만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고객 기반으로 고객 친화적인 쿠팡 앱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쿠팡은 국내외 우수한 IT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 함께 쿠팡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국은 물론 시애틀, 마운틴 뷰, 상하이, 싱가포르, 대만 등 전세계에서 2500여 명의 인재가 근무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0년간 6조 2000억원 가량을 기술 및 물류 인프라에 투자했으며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누적 1800건의 특허 등록도 달성했다.

한 참가자는 "이런 글로벌 규모의 대회를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발에 몰두하며 다른 팀들과 순수하게 경쟁하고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쿠팡 강한승 대표가 1등 팀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대회 마지막 날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쿠팡 강한승 대표가 직접 우승팀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강 대표는 “이번 해커톤에서 쿠팡과 함께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테크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글로벌 해커톤을 통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쿠팡은 고객 경험을 한층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핵서울 수상자들의 단체 사진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